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의 분포 변화에 대하여: 생성 문법적 접근

본 연구는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를 통틀어 서술어에 나타나는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의 분포 양상을 대조하고 그 역사적 변화 과정을 생성 문법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변화가 선어말어미 ‘-(으)시-’가 아닌 인접한 다른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 변화에 따른 변화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같은 주장을 했던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최동주 1988, 2015; 안병희 · 이광호 1990)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변화가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며 언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예측되는 변화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중세한국어 선어말어미 ‘-(으)시-’가 현대한국어와는 달리 선어말어미 ‘-더-’를 후행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차이가 ‘-더-’의 의미 변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이미 서러 연행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안병희 1967; 이승우 1973; 최동주 1988, 1995/2015; 주경미 1990; 안병희 · 이광호 1990).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의 ‘-더-’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현대 한국어의 ‘-더-’가 증거성 등 양태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박재연 2006, 송재목 2007, 박진호 2011, Lee 2020 등).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더-’가 중세한국어에서는 상 표지로 기능하다가 현대한국어에서는 증거성 표지로 변화했다고 가정한다.

한편, 주체 존대 ‘-(으)시’의 경우 그것이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무엇을 존대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적어도 ‘-(으)시’가 실현될 때 주어 명사구에 존대의 대상이 위치한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 존대 ‘-(으)시’를 주어와 일치 소구(Agreement phrase, AgrP)사이의 존대 자질(honorific feature)의 일치 현상으로 본다. 주체 존대 ‘-(으)시’가 위치하는 AgrP는 그보다 높은 위치의 시제 소구(tense phrase, TP)의 지정어(specifier) 위치에 자리하는 주어 명사구와 일치를 이룬다.

그간의 생성 문법 연구에서 통사 구조 내에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배열 구조가 발견된다는 점이 여러 증거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Cinque 1999). 현 논의의 맥락에서 ‘-더-’의 중세한국어와 현대한국어의 위치는 각각 상 소구(aspect phrase, AspP)와 증거성 소구(evidential phrase, EvidP)로 노정되며 범언어적으로 EvidP는 TP 및 AspP보다 통사 구조 내에서 상위에 위치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세한국어에는 나타나는 배열이 왜 현대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한국어는 핵어 후치 언어이므로 통사 구조에서 더 상위에 위치한 형태소일수록 서술어의 오른쪽 주변부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grP보다 더 낮은 AspP에 있던 ‘-더-’가 더 높은 EvidP로 위치를 바꾸면서 서술어 형태상에서는 ‘-(으)시-’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더-’의 의미 변화에 따른 ‘-(으)시-’의 분포 변화 양상에는 언어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어떤 기능 범주의 통사 구조 내 역사적 위치 변화는 통사 구조 내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이행하며(Roberts & Roussou 1993, Roberts 2022) 그 변화의 방향은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통사의 뼈대 구조를 따른다는 것이다.

논문 제목: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 의 분포 변화에 대하여: 생성 문법적 접근
필자: 심재홍

소속: The University of Chicago

주소:

Department of Linguistics

1115 E. 58th Street

Rosenwald Hall, Room 203

Chicago, IL 60637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전화번호: (한국) 010-9923-7344 (미국) +1-872-818-1981

전자우편 주소: jaehongshim@uchicago.edu